



KIA 양현중(왼쪽)이 7일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서 수비훈련을 위해 피칭 동작을 하고 있다.



KIA 내아수 서건창(왼쪽부터), 김규성, 김선빈, 박민이 7일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서 수비훈련을 하고 있다.

“수비 실수하는 훈련인데 호흡이 너무 잘 맞네”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호주 캔버라-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박기남 코치 “보완점 찾기 분주... 어수선한 분위기 아쉬워”
양현중·김선빈 등 선수들 ‘사인’ 미팅... 김도영 “어려워요”

“실수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 투수·야수들이 7일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다.
캠프에서 투수와 야수조는 각기 다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움직인다. 이날은 캠프 첫 팀 수비훈련이 진행되면서 투수들과 내아수들이 함께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수비에서 내야의 역할은 막중하다. 투수 뒤에서 공을 처리해주고, 주자들을 묶거나 잡아내야 한다. 투수도 공을 던진 후에는 수비수가 되는 만큼 내야

수와의 호흡이 중요하다.
이들은 새로운 수비 포메이션과 사인을 익히고, 호흡을 맞춰보는 시간을 보냈다.
첫 팀 수비 훈련이 끝난 뒤 박기남 수비 코치의 반응은 “다음 훈련 때는 플랜을 바꿔서 실수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였다.
훈련에 앞서 박기남 코치는 “실수를 하라”고 강조했다. 첫 훈련인 만큼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선수들이 편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훈련 과정에서 나오는 실수를 바탕으로 보완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비 코치의 예상과 주문과 달리 이날 전체적으로 큰 실수가 나오지 않았다.

박기남 코치는 “시즌 때는 못 하나야 야수와 투수들 호흡을 맞추는 시기다. 실수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실수를 너무 안 하나야 불안하다(웃음). 바뀐 사인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했다”며 “생각보다 타이밍도 잘 맞고 호흡도 잘 맞아서 놀랐다. 실수가 나와야 하는데 거기서 보완점 찾아야 하는데 생각보다는 완벽했다”고 평가했다.
물론 아쉬운 장면은 있었다. 박기남 코치는 훈련이 끝난 뒤 선수들에게 “모든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인을 놓고 투·타의 베테랑 양현중과 김선빈을 중심으로 사인과 관련해 선수들만의 미팅도 진행됐다.

박기남 코치는 “선수들이 사인을 습득하고, 그라운드에서 역할을 한다. 내가 어떻게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수들이 편하게 사인을 내면, 거기에 맞춰 주겠다고 했다. 사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선수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설명했다.
미팅에서 주도적으로 의견 조율에 나선 김선빈은 “사인부분에서 도영이가 어려워해서 그 부분 이야기했다. 서로 이해하기 쉽게 맞춰야 한다. 사인이 어려우면 내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어렵다”며 “첫 팀플레이인데 실수는 많이 없었다. 집중이 많이 안 되고 어수선했던 부분은 아쉽다. 이제 실수도 하고 그만큼 많이 흔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우성에게는 특히 긴장된 훈련이었다. 이우성은 지난 오기나와 마무리캠프 때부터 1루수 변신을 준비했다. 외야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무주공산인 1루에서 역할을 하면서 팀 타격 극대화를 노리려는 방안. 마무리캠프에서 준비했던

것을 처음 보여주고,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었던 만큼 이우성에게는 긴장감 가득한 훈련이었다.
이우성은 “집중하고 있었다. 긴장도 많이 했다”며 “사인 보는 것과 움직이는 타이밍 빼고는 괜찮았다. 실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인이랑 타이밍 더 하면서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본격적인 수비 훈련이 시작된 만큼 박기남 코치는 팀과 페이스를 강조할 계획이다.
박기남 코치는 “방망이 안 맞고 타격이 안 되면 수비 나가서 티 내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부분 잘 케어해야 할 것 같다. 수비에서 티 내지 말고 해야 더 좋은 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화려했던 안경감 있는 수비도 이야기한다. 본인 자신만 만족하는 수비가 아니라 많은 관중, 팬들이 인정하는 수비 모습을 보여주려고 부탁하고 있다”며 “선수들이 준비를 잘하고 캠프에 왔다. 송구하는데 오버 페이스가 있는데 그것만 잡아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의욕 충만 ‘외인 원투펀치’

KIA 월 크로우-제임스 네일
실전 방불케 하는 불펜 피칭
한국어 배우고 문화 적응 분주

“외국인 투수 잔혹사”를 끊기 위해 KIA 타이거즈의 방안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7일 KIA의 스프링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 피칭장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KIA가 새로 구성한 ‘외인 원투펀치’ 월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이 이날 나란히 불펜 피칭에 나섰다. 지난 3일 캠프에서 또 KIA에서 첫 불펜피칭을 소화했던 두 선수는 4일 만에 다시 공을 던졌다.
30구를 소화한 네일은 “포수와 호흡을 맞추는 것과 존 안으로 던지는 것에 집중했다”며 싱커, 스윙퍼, 체인지업, 커터 등을 선보였다.
“포수와 사인 맞추는 연습을 했고, 모든 구종을 존에 던지는 연습을 했다”고 설명한 크로우는 45구를 던지면서 포심 패스트볼, 싱커, 슬라이더, 스윙퍼,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했다.
지난 2년 외국인 투수 농사를 망쳤던 KIA가 고심해서 영입한 선수들인 만큼 네일과 크로우는 눈길 끄는 투구로 사람들의 감탄사를 끌어냈다.
던지는 투수도 이를 지켜본 이들도 만족스러운 피칭이었지만, 정재훈 코치는 “천천히”를 강조하고 있다.
정재훈 코치는 “두 선수 모두 재능이 좋다. 몸에 힘을 쓰는 것이라든가 새로운 구종을 연마할 때 감각 이런 부분에서 두 선수 모두 상당히 뛰어나다. 미국에서 잘하는 축에 속했던 선수들이고 메이저리그 경험도 있는 선수들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좋은 평가를 내렸다.
두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미국 스타일’이 걱정이다.



KIA 새 외국인 투수 월 크로우(왼쪽)가 한국어로 ‘좋아’를 이야기하며 엄지를 들어보고 있다.

캠프 시작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확실한 자리에서 차분히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아직은 이런 환경이 익숙지 않은 ‘새 얼굴’이다.
정재훈 코치는 “미국에서는 곧 게임 들어간다. 미국에 있으면 계속 경쟁하고 생존해야 하는데 이곳은 그런 게 아니다. 개막에 맞춰야 하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보여주려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첫 불펜 피칭이 게임 불펜이었고, 이번은 경기와 경기 사이 가볍게 하는 스타일이었다. 다음 번이 게임 피칭인데 네일이 오늘 조금 오버했다”며 “5개만 던지고 나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페이스 맞춰서 하라고 했다. 원하는 대로 충분히 해줄 테니까, 베스트가 아니라 개막에 맞추라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로우는 성향이 조금 다르다. 계속 페

이스를 올리고 있고, 마지막에 ‘됐다’ 싶으면 조절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이와는 경쟁이 아닌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 KIA 마운드에 힘을 더해줘야 하는 만큼 두 선수는 ‘진짜 무대’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래서 KIA는 두 선수가 천천히 새 리그를 익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펜피칭을 통해 ‘합격점’을 받은 두 선수는 적응력에서도 박수를 받고 있다. 선수들과 편하게 어울리면서 새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에도 열심이다.
특히 언어에 관심이 많다. 한국어로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통역에게 물어서 바로 실전에 사용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안 좋아” 등을 한국어로 말한 크로우는 “더 많은 말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웃었다.
/wool@kwangju.co.kr

64년째 ‘빈 손’

한국, 아시안컵 준결승서 요르단에 0-2패...징크스 못 깨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 징크스’를 카타르에서도 깨지 못하고 무관의 세월을 67년으로 늘렸다.
워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카타르 알라이안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0-2로 져 탈락했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했다. 다음 대회는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시아 최강’을 자처하는 한국은 이제 67년 만의 우승을 기약해야 하는 신세다.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역대 최다인 6회 우승 등 국제 무대에서 빛나는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아시안컵만 따지면 ‘종이호랑이’ 신세다.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것은 역대 두 차례(1956·1960년)로 참가팀이 4개국에 불과했던 시절이었다. 이후 4차례 준우승(1972·1980·1988·2015년)과 4차례 3위(1964·2000·2007·2011년)

의 성적을 거뒀다.
라이벌인 일본이 4차례 우승(1992·2000·2004·2011년)한 것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그간 중동의 ‘모래바람’에 약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토너먼트에서 중동 팀에 여러 번 발목이 잡혔다.
직전 대회인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에서 한국은 카타르에 8강에서 패해 짐을 썼다.
2007년 동남아 대회에서는 준결승에서 이라크에 승부차기로 져 우승 꿈을 접어야 했다.
2004년 중국 대회에서는 8강에서 이란, 2000년 레바논 대회에서는 준결승에서 사우디에 져 탈락했다. 1996년 UAE 대회 때는 8강에서 이란에 무려 2-6이라는 점수로 대패하는 약몽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한국은 중동의 북병 요르단에 패하며 짐을 썼다. 특히 이번에는 공격부터 수비까지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포진해 역대 최강의 대표팀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터라 아쉬움은 더 크다.
/연합뉴스



6일 카타르 알라이안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전 한국과 요르단 경기에서 경기 종료 시간이 가까워지자 이강인, 손흥민, 조규성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연합뉴스